

월/요/광/장

이병화



주요국간 무역 불균형의 지속으로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은 국제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GDP 대비 26%)에서 오는 2011년 세계 총 GDP의 15% 수준(미국 GDP 대비 51%)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외채무 누증이 방치되면 언젠가는 투자자들이 미 달러화의 가치에 의

세계적 불균형과 국가적 불균형

구심을 갖게 되어 보유를 기피하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간 사전적인 정책협조가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실질실효환율을 10~20% 정도 절하시키고 재정 적자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 일본은 자국통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한 수준으로 절상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측과 주문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대내문제에 우선하며 세계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행동은 미루고 있다.

우리에게는 세계적 불균형 이외에도 국가적 불균형(National Imbalance)의 해소가 또 다른 당면과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1%에서 2004년 48%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세계적 불균형 이외에도 국가적 불균형(National Imbalance)의 해소가 또 다른 당면과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1%에서 2004년 48%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에도 지장을 주게 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에 산업의 과잉 집중과 집적의 이익이 소멸되면 다른 지역에 새로운 산업집적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는 기업들이 해외로 가지 않고 우리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경영유요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투기과열지구 해제 서둘러라

광주가 빠르면 이달 말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지난달부터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과열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주택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이다.

4분기 건축허가면적과 건설발주액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50.2%, 70.2%나 감소했다. 따라서 광주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하며 그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건설업은 취업 및 생산유발 효과가 제조업보다 높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크다. 특히 제조업이 취약한 광주지역 경제의 현실에서 건설산업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정부는 차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주택수요와 가격, 그리고 투기 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 합리적이다.

휘발유값 고공행진 국민들이 '뽕'인가

휘발유값에 비상이 켜졌다. 석유공사가 전국 주유소를 표본조사한 5월 셋째 주 무연 보통휘발유 가격이 14주 연속 오르며 1당 1천538.20원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휘발유값은 세계적으로 비싸다. 서울의 휘발유값은 세계 17대 도시 중 12위이고 아시아에선 홍콩에 이어 두번째다.

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휘발유값에 '주유소 가기가 겁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휘발유값 고공행진의 근본원인이 국제유가의 급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기전망치인 배럴당 55~60달러를 넘어 66달러를 돌파했다. 석유부문 조기경보지수도 배럴당 70달러를 넘었던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두 번째 단계인 '경계'로 격상됐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전부는 아니다. 정유사들은 환율 하락분을 충출하기에 반영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초과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

휘발유값의 60%에 달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이 원인이다. 1당 붙는 세금이 미국의 7배, 일본의 2배라고 한다.

정부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휘발유값 산정체계를 투명화하고 정유업체에 대한 지도와 감시를 강화해 폭리를 막아야 한다.

법조 칼럼

김관재



필자는 지난 5월 7일부터 1주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뉴른베르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필자는 지난 5월 7일부터 1주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뉴른베르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독일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재판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우리 사법현실에 발전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시찰이었다.

필자는 지난 5월 7일부터 1주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뉴른베르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독일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재판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우리 사법현실에 발전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시찰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위증·무고·사기 등 거짓말에 바탕을 둔 범죄가 너무 많고(2000년을 기준으로 위증 행위

기고

김종완



어느 신문 사회면에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학생은 3대 독자였습니다. 그가 사망한 뒤에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 '엄마와 아빠가 높은 육교는 오르내리기가 힘들다며 늘 내손을 잡고 육교 밑 중앙선을 건너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신문 사회면에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수석으로 공부한 학생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기위해 이른 아침 학교앞 도로변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잡으려다 대형 트럭에 치어 사망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어느 신문 사회면에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수석으로 공부한 학생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기위해 이른 아침 학교앞 도로변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잡으려다 대형 트럭에 치어 사망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어느 신문 사회면에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수석으로 공부한 학생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기위해 이른 아침 학교앞 도로변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잡으려다 대형 트럭에 치어 사망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어느 신문 사회면에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수석으로 공부한 학생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기위해 이른 아침 학교앞 도로변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잡으려다 대형 트럭에 치어 사망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어느 신문 사회면에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수석으로 공부한 학생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기위해 이른 아침 학교앞 도로변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잡으려다 대형 트럭에 치어 사망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어느 신문 사회면에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수석으로 공부한 학생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기위해 이른 아침 학교앞 도로변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잡으려다 대형 트럭에 치어 사망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친 그의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기사는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스쿨버스로 귀가하던 7살 어린이가 마을 입구에서 마중나오는 엄마를 보고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저기있다."고 좋아했고 스쿨버스에서 내린 후 50m가량 떨어진 엄마를 보며 "엄마"라고 외치고 도로를 횡단하다 승진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으며,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잠재되어 있어 도로교통환경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도로교통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을 꾸준히 개선하고 확충하여야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어른으로부터.

교육청 원어민 교사 채용 검증장치 마련을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영어 원어민 강사가 2~3개월만에 바뀌었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1년도 안돼 벌써 3명이 바뀌었다. 학원에서는 그 강사가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지만 주변에 그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다른 학부모를 말을 물어보면 영어학원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강사로 고용했다고 말해서 생겨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한다.

다만 학원도 별한 다르지 않는데다 원어민 강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니던 학원을 맘대로 바꾸기도 여의치 않아 그냥 보내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영어 원어민 강사가 2~3개월만에 바뀌었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1년도 안돼 벌써 3명이 바뀌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영어 원어민 강사가 2~3개월만에 바뀌었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1년도 안돼 벌써 3명이 바뀌었다. 학원에서는 그 강사가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지만 주변에 그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다른 학부모를 말을 물어보면 영어학원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강사로 고용했다고 말해서 생겨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한다.

다만 학원도 별한 다르지 않는데다 원어민 강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니던 학원을 맘대로 바꾸기도 여의치 않아 그냥 보내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법정 중심의 구술재판을 위해

주장에 옳매이지 않고,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서 화해를 이끌어 내거나 불필요한 항소를 취하하는 민사 재판 및 형사재판 광경을 보면서, 사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천965명 대 2명, 사기는 5만389명 대 269명이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려 법정에서도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등 성숙된 민주의식과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사법부는 지금 민사재판에서의 구술심리주의,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를 역전 과제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서류 중심으로 진행해 온 재판을 탈피해서, 사건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마음껏 공방을 벌이게 함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법부는 지금 민사재판에서의 구술심리주의,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를 역전 과제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서류 중심으로 진행해 온 재판을 탈피해서, 사건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마음껏 공방을 벌이게 함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증인의 거짓말이 개입하게 되면, 법원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결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염려가 매우 높다.

필자는 이번 독일 법원 방문을 통해, 법정 중심의 재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에 결국 그 혜택이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여실히 느끼고 체험했다. 비록 우리가 근대 사법제도의 출발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성숙된 법정 중심의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과 법원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한다면, 세계 최고수준의 사법제도를 완성하는 날이 곧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평론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속도는 기술혁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엑스터시의 형태이다. ... 인간이 기계에 속도의 능력을 위임하고 나자 모든 게 변했다. 이때부터 그의 고유한 육체는 관심 밖에 있게 되고 그는 비인체적, 비물질적 속도, 순수한 속도, 속도 그 자체, 속도 엑스터시에 몰입했다."

밀란 쿤데라는 그의 소설 '느림'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와 느림은 상극이다"면서 "자본주의의 만연은 사람에게 속도를 강요했다"고 갈파했다.

각박해진 세상은 사람들의 걸음걸이에 속도감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걸음 속도가 10여년 전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영국 허트포드셔대학 리처드 와이즈만 교수는 최근 세계 32개 도시 사람들의 걸음 속도를 측정한 결과 1994년 조사 때보다 평균 10%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보도 60피트

(약 18m)를 걷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3.7초에서 12.4초로 1초 이상 빨라진 것이다.

걸음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극심한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용' 국가였다.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 보행자들은 60피트를 10.55초에 걸여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반면 아프리카의 빈국 말라위 사람들은 이보다 3배나 느린 31.60초였다.

1994년 세계인의 걸음 속도를 측정한 캘리포니아대학 로버트 레빈 교수는 "사람은 빨리 움직일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줄 가능성이 적어지며 심장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발표해 속도감과 사람의 성격·건강 간의 상관 관계를 설명했다.

적립 보행은 신이 사람에게 내려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다. 신이 부여한 축복이자, 사람의 본능에 맞게 가끔은 느린 걸음 속에서 한적한 여유를 즐기면 어떨까.

적립 보행은 신이 사람에게 내려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다. 신이 부여한 축복이자, 사람의 본능에 맞게 가끔은 느린 걸음 속에서 한적한 여유를 즐기면 어떨까. /오승주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느림'의 미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